

###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한 객혈환자들의 장기 추적 결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학교실

김용길\*, 홍상범, 오연옥, 심태선, 임채만, 이상도, 김우성, 김동순, 김원동, 고윤석

배경 : 기관지동맥색전술(bronchial artery embolization, BAE)은 다량의 객혈환자에서 객혈을 중지시키는 단기효과는 90%내외로 알려져 있으나 장기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객혈환자에서 시행된 BAE의 장기 치료 효과와 치료 성적에 연관된 인자를 찾고자 하였다. 방법 :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4월 31일까지 한 대학병원에 객혈로 입원하여 BAE를 시행 받은 환자 139명 중 최소1년 이상 추적이 가능하였던 100명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환자는 추적기간 중 객혈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던 환자군을 재출혈군, 나머지를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 환자의 연령(중앙값)은 54세이고 남자가 76명(76.0%)이었다. 하루 100 cc이상의 객혈량 보인 경우는 전체환자의 95.0%이었다. 객혈의 원인질환은 결핵, 기관지확장증, 진균감염, 폐암 등의 순이었다. 대상환자 중 객혈로 사망한 환자는 5명(5.0%)이었으며 이중 4명이 말기 폐암 환자들이었다. 대상군 중 재출혈군은 30명이었고 이중 13예(43.3%)가 1개월 이내에 발생하였다. 대조군과 재출혈군 사이에 입원시의 성별, 연령, 24시간 객혈량 및 APACHE II 점수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재출혈군 중 10예에서 반복적 BAE가 시행되었으며 이중 5예는 수술이 시행되었고 이중 3례는 원인질환이 기관지확장증이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5예 중 1예에서 재출혈이있어 3차 BAE가 시행되었다. 재출혈군 환자들중 진균감염이 원인이 된 경우는 20.0%이며 대조군 중에는 7.1%이었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초선택적색전술(superselective embolization)이 가능했던 7예에서는 재출혈이 없었으나 초선택적색전술이 되지 않은 경우의 재출혈(31.2%)과의 빈도 차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대상군중 BAE 후 척수허혈이 발생된 경우가 1예 있었으나 기관지식도 누공, 허혈성 장염과 같은 다른 중요 후유증이 발생된 경우는 없었다. 결론 : 100 cc이상 다량 객혈의 경우라도 BAE도 장기치료에 효과적이며 초기의 객혈량이나 기저질환 및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그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 기관지 기형의 임상적 고찰

대구 파티마 병원 호흡기 내과

김조철\*, 정승욱, 이수욱, 김연재, 이병기

목적 : 기관 또는 주 기관지에서 발생하는 기관지 기형은 엽 또는 구역 기관지에서 흔히 관찰되는 비정상 분지에 비해 매우 드물게 관찰되며, 기관성 기관지(tracheal bronchus)와 심장성 부속 기관지(cardiac accessory bronchus)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 반복적인 폐렴을 유발하거나 기관 삽관시 기관성 기관지의 폐쇄에 의한 폐허탈 혹은 우상엽의 과팽창을 초래할 수 있다. 연자들은 최근 4년간 경험하였던 기관지 기형의 고찰을 통하여 그 임상적인 의의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방법 : 2001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환자 가운데 기관성 기관지(8예)와 심장성 부속 기관지(5예)가 관찰되었던 13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증상, 기관지내시경 소견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성적 : 남자가 11예, 여자가 2예였으며, 평균연령은 56.5(38-77)세였다. 내원시 주증상은 객혈 5예, 기침 4예, 호흡곤란 2예, 그리고 흉통 및 무증상이 각각 1예였으며, 11예에서 기관지 기형과는 관계없이 기저 폐질환에 의한 증상이었다. 기관성 기관지가운데 기관 분기부 1cm이내에 위치한 기관 분기부형이 3예, 8예는 1cm 상방의 기관에 위치한 기관형이었다. 기관 분기부형의 기관성 기관지에서 기인한 우상엽의 말초형 폐암 1예는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심장성 부속 기관지에 국한된 폐렴 1예는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었다.

결론 : 기관지 기형은 대부분 기저 폐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며, 양호한 임상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생각된다.